

집중기획 |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 한반도 평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는 북한 및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전쟁', 북한 및 미국이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예방전쟁', 중국 및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공격하는 '패권전쟁' 등이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북한은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남한의 일부 세력들은 무력으로라도 북한을 괴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상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이여도 및 독도를 각각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각 주체들이 상대방을 동반자나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복속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이치이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어느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소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러시아 또한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6자 평화체제 구축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자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6·25 전쟁의 종식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힘으로 구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불가침 협정이 맺어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할 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동북아에는 힘의 공백이 생겨 전쟁의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사진은 1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을 다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 남북 군사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으로 신뢰 쌓아야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에 명확한 입장정리 필요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해 동북아 유관국들이 참여하는 '집단안전보장기구'가 만들어 져야 한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안보협력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ideal)' 생각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북한 비핵화 방안, 남북간

통일 주도권 경쟁이 현실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이고 그 중심은 북핵 문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잠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남북한이 다방면에서의 '평화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


론 사회문화, 경제, 정치 등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가 증진되고 적개심이 약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전선언이나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중국 및 일본의 한국 침략 등을 강력하게 제어하

고 있다. 만일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동북아에는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그것을 때꾸기 위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는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현준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본 기사는 <자유마당> 2월호 기사를 발췌한 것임

 이 한편의 책을 읽고 | <3층 서기실의 암호>

## 소수 엘리트 제외한 대다수 주민 삶 궁핍함에 가슴 아파



태영호. 그를 알게 된 건 TV뉴스를 통해서였다. 2016년 뉴스를 시청하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탈북했다는 빅뉴스를 들었다. 북한정권의 핵심 엘리트 계층의 이탈이라서 커다란 이슈를 모았다. 당시 기사를 접하면서 그는 왜 외교관이라는

좋은 직장과 북한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지 매우 궁금했었다. 그러던 중 그가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서적을 발간했다는 소식이 나는 책을 구입해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는 북한에서 출중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특히 영국에서 공사생활을 하던 중 김정철의 에릭 클랩턴 공연장을 수행했던 사건으로 그가 세계적으로 노출됐었다.

김정은 일가를 최측근에서 지켜본 그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와 핵보유

이후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나는 평상시 북한 3대 세습정권이 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왜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말하고 있다.

북한의 사법·입법·행정은 형식상 구분되지만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조직은 '3층 서기실'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북한 내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권력 핵심기관이라고 한다.

바로 이곳에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단다.

끝으로 저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한민족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기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선 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태영호 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와 같은 제2, 제3의 고발서가 나와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

이윤영 | 본부 조직본부 조직관리처장